

세무학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2011년 3월 pp.191~227
한국세무학회

기업지배구조가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노력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사회 특성인 독립성, 활동성 및 전문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을 살펴본 반면(Abbott et al. 2003 ; 정영진 2005 ; 박종일 2006),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해서도 각각 정상수준과 비정상수준으로 나누고, 비정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노력간의 관계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의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지배구조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면 비정상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그리고 비정상 감사시간과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활동성은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사회의 전문성 중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재무전문가, 타기업의 경영자 및 교수는 각각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사회의 전문성 중 적어도 1인 이상 상경계 교수가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구성원인 기업은 비정상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7-B00329).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parkjil@chungbuk.ac.kr, 043-261-3380, 주저자

둘째, 이사회 특성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기업과 존재하는 기업간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특히 이사회의 전문성 변수에 따라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이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의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주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실증적 문헌에 대하여 추가적 공헌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특성,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 비정상 감사보수, 비정상 감사시간, 감사품질

I. 서 론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중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감사보수(Abbott et al. 2003 ; 정영진 2005), 또는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감사시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종일 2006).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의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Carcello et al. 2002).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알아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특성 보다 감사위원회 특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 한편, 감사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이사회가 대신하여 이를 더붙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 선임에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특성과 외부감사인의 선임과의 관계나 감사인의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더 관련성이 있겠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1)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업무감독을 비롯한 내부 및 외부의 감사관련 제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1978년에 들어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요건에 경영진과는 독립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외부 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미국의 전국증권업협회(NASD)에서도 나스닥(NASDAQ)에 상장되는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어서 1987년 허위의 재무보고에 관한 국가위원회(일명 Treadway 위원회)는 모든 공개기업에 대해 SEC 법령에 의한 독립적인 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다(박광훈 등 2005).

특성과 외부감사인의 선임과의 관계나 감사인의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²⁾

한국의 경우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이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시장의 신뢰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사항이 대규모기업들에서의 지배주주의 전횡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자의 분식회계행위를 억제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 및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중 하나가 기업의 내부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었다.

당시 정부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즉 정부는 1999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도입을 명문화한 후, 2000년도에 들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무설치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취지에는 자산규모가 작은 상장과 등록법인들에게는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배려였다. 우선은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큰 대기업들에 대해서 조기도입을 실시한 후, 이들 기업에서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이 발휘된다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감사위원회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은 아니지만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기업들에서만 자발적인 수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상장기업의 수에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예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대한 전체표본의 수치로 볼 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전체표본 중 15.6%에 불과하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은 84.3%에 이른다.³⁾ 이러한 수치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유가증권상장

2) 감사위원회 특성과 외부감사인의 선임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Abbott et al.(2000)가 있으며, 이사회 특성 중 이사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인의 선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Beasley and Petroni(2001)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연구는 미국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해 분석한 경우이므로, 이사의 특성 보다는 감사위원회 특성이 더 중요하므로, 이사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인의 선임간의 관계 파악은 간접적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내의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 특성이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특성과 외부감사인의 선임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유가증권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우 일부 극단치를 제거한 후의 전체표본 3,583개 기업/연 자료였다. 이를 연도별 평균으로 계산하면, 448개(=3,583/8년) 기업이다. 전체표본 중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562개 기업/연 자료였으며, 이를 다시 연평균으로 계산하고 반올림을 적용할 때 70개(=562/8년) 정도가 된다. 그에 반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

기업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기업수가 무려 5.37배($=0.843/0.156$)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체인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알아봄에 있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을 위주로 분석하면 외국과 달리⁴⁾ 국내의 실정 법상에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상장된 기업 중 1/5 이하의 표본만이 분석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4/5 이상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들에서의 지배구조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⁵⁾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더 많은 표본집단에서의 국내 지배구조 특성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책임과 역할을 대신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특성 중 독립성, 활동성 및 전문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와 다른지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이사회 특성이 사외이사의 특성으로 대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에 대하여 기존 이 분야의 연구들보다 더 세분화된 구분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⁶⁾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대하여 주로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실제 감사보수(감사시간)에 대하여 다시 정상수준의 감사보수(감사시간)와 비정상 수준의 감사보수(감사시간)로 나누어 비정상 감사보수(감사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⁷⁾

지 않는 기업의 수는 3,021개 기업/연 자료로서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378개($=3,021/8$ 년) 기업이었다.

- 4) 본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국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상장기업들은 상장요건시에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업들 모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들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상장요건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일정 자산규모에 달하는, 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에 대한 사항은 국가간의 제도적인 환경차이가 존재한다.
- 5)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제 외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 6) 사외이사의 전문성여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Carcello et al. 2002).
- 7) Choi et al.(2009)은 감사인이 벌어들인 실제 감사보수를 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보수로 구분할 경우 정상 감사보수(normal audit fees)는 피감사기업의 규모, 고유위험, 영업의 복잡성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비정상 감사보수(abnormal audit fees)는 특정 피감사기업의 특이한(idiosyncratic) 요인들 예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과의 경제적 의존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보수의 뇌물적 성격이나 감사인이 제공한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익성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측정치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Kinney and Libby(2002)의 주장에 기초하며, 이 연구에서는 비정상 보수를 뇌물수수에 비유하고 있고, 감사서비스와 관련한 경제적인 렌트(rents)나 감사인의 경제적 유착(economic bonds)관계를 포착하는데

본 연구는 검증가능한 가설(testable hypothesis)을 설정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특성에 대해 독립성이 높고, 활동적이며, 또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Abbott et al. 2003 ; Carcello et al. 2002 ; 정영진 2005 ; 박종일 2006).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분석기간을 이용하고 유가증권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대규모표본(large samples)으로 최종표본은 3,583개 기업/연 자료이고, 이중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3,021개 기업/연 자료이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562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특성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분야의 선행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검증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의 효과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분석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에게는 정책적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배구조의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의 연구설계에서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며, 표본의 선정절차는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해석을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배경과 연구가설

1. 지배구조의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조사한 실증적 문헌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즉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Carcello et al.(2002)의 연구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감사보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Abbott et al.(2003)과 정영진(2005)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박종일(2006)의 연구가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는 무척 많으므로, 본 절에서는 본 논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⁸⁾

있어 정상적 보수나 실제 보수에 비해 더 나은 측정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8)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관은 Shleifer and Vishny(1997), 박광훈 등(2005)의 연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박수근(2010)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Carcello et al.(2002)는 이사회 특성을 독립성, 활동성 및 전문성으로 나누고, 이러한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Fortune 1000 위에 랭크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한 Big 6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받은 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부지런할수록, 그리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⁹⁾

Abbott et al.(2003)은 감사보수와 감사위원회 특성(독립성, 전문성, 활동성)간에 양(+)의 관계를 기대하였다.¹⁰⁾ 분석결과,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업이나 회계 및 재무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포함된 기업이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모임 횟수는 감사보수와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영진(2005)은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Abbott et al.(2003)과 같이 감사위원회 특성을 분류하고 감사보수와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업이나 감사위원회 모임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계전문성으로 측정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변수는 감사보수와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중 Abbott et al.(2003)과 Carcello et al.(2002) 및 정영진(200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bbott et al.(2003)은 이사회 독립성 및 활동성이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그에 반해 정영진(2005)은 이사회 독립성만 감사보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박종일(2006)은 감사인의 노력을 감사시간으로 측정하고, 감사위원회 특성 중 전문성, 이사회 특성 중 독립성 및 활동성과 감사인의 감사시간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즉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포함된 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 및 이사회 모임에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더 증가된다는 결과이다. 이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사외이사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므로, 현행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특성 중 독립성이나 활동성은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모두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감사위원회 특성 및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해당된다. 감사위원회가

9) Carcello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이사회 독립성을 사외이사비율로, 활동성을 이사회 모임횟수로 측정하였고, 전문성은 타기업에 대한 사외이사의 겸직여부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사회 전문성의 경우 타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여부로 전문성을 측정한 사항은 후속연구들에서는 오히려 회색 이사로 간주하기도 하므로, 이렇게 측정할 경우는 오히려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변수의 속성상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10) 감사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Menon and Williams(1994)의 연구에서 감사위원회의 도입 자체 보다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특성이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2. 연구배경과 연구가설

대리이론(agency theory)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수록 대리비용이 발생된다고 주장한다(Fama and Jensen 1983). 경영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액주주로부터의 부를 침해하거나 특권적 사적소비를 향유할 수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Jensen and Meckling (1976)은 소유구조에 따른 대리문제는 전문경영자와 주주간에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Shleifer and Vishny(1997)은 전문경영자의 소유집중도가 증가되면서 소유경영자와 외부소액주주간의 대리문제로 그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La Porta et al.(1999)은 오늘날 기업에서 대리문제의 핵심은 지배권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외부소액주주의 부를 자신에게 이전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가능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배주주와 외부소액주주간의 대리문제는 대주주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통제장치가 부실한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러한 잠재적 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체계가 이사회의 역할이다. 한국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최고경영자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와 독립된 감사가 이를 감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이사회가 주식회사의 최고경영기구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이사회는 사실상 인인권과 보수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나 특정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업무집행을 수행해 왔다(권종호 2001). 그동안 이사회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소신 있는 발언과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¹³⁾ 이러한 이사회의 기능 미비에 기인한 경영실패의 가능성과 경영의 불투명성은 기업의 가치창출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거론된 것이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집약되며,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주

11) La Porta et al.(1999, 2000)에서는 기업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려는 강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후속연구들에서는 터널링(turnelling)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특징 때문에 지배권과 소유권간의 괴리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2) 국내 실정법상에 이사회는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하위 위원회에 위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의 하위 위원회 중 하나에 속한다.

13) 우리나라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희갑(1999) 또는 정찬형(1999)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도 하에 2000년에 들어 사외이사¹⁴⁾제도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기에 이른다. 또한 2000년도에는 사외이사제도와 더불어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제도인 감사위원회제도 역시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¹⁵⁾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회사와 독립성이 있는 외부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써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지배하고, 이사회가 경영자의 기업성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미국식 이사회제도이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결정과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시켜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경영민주화의 실현과 효율적인 내부견제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감사위원회제도는 국내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설치가 수행된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상장기업이 더 많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지배구조를 연구한 여러 실증적 문헌들에서는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성과의 개선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기업성과가 더 증가됨을 보고하거나(Brickley et al. 1994 ; Byrd and Hickman 1992),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더 낮고(Dechow et al. 1996 ; Beasley 1996), 이사회의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됨을 보고하였다(Xie et al. 2003 ; Klein 2002). 또한 Carcello et al. (2002)은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부지런할수록, 그리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easley(1996), Dechow et al.(1996), Fama and Jensen(1983)은 독립적인 이사는 자신의 평판(reputation)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감시와 정보공시를 자본시장에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전 문헌들에서는 이사회 특성(board characteristics)을 주로 이사회의 독

14) 사외이사란 통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비상근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경영의사결정시에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당시 취지였다.

15) 국내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은 2000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제2조에 신설되었으며, 사외이사의 정의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다. 또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벤처기업 제외)은 총이사의 4분의 1 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이사회 총인원의 2분의 1 이상(최소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2001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협회등록법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립성(board independence), 활동성(activity) 및 독립적인 이사의 전문성(expertise of independence directors)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Carcello et al. 2002 ; Klein 2002 ; Xie et al. 2003 ; Abbott et al. 2003).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에 따라 이사회 특성 살피려고 한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사회는 보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또한 이사회 내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이사로 구성되며, 이러한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우수한 양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Carcello et al. 2002). 경쟁적인 감사시장에서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보다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은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켜서 양질의 감사품질을 제공한다(Simunic 1980 ; Francis 1984 ; Palmrose 1986 ; 최 관과 백원선 1998 ; 박종일과 최 관 2009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사회 특성을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으로 나누고 감사인의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가설을 선택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의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1 :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는 양(+)의 관계가 있다.

가설 2 : 이사회 활동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는 양(+)의 관계가 있다.

가설 3 : 이사회 전문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는 양(+)의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분야의 Carcello et al.(2002) 등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보수와의 관계(Abbott et al. 2003 ; 정영진 2005)나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시간과의 관계(박종일 2006)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Carcello et al.(2002)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앞서의 Abbott et al.(2003)과 정영진(2005)의 연구처럼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Carcello et al.(2002)의 연구와 달리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부재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사회에서 대신 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과 달리 국내 상장기업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분석상에 독특한 설정(unique setting)을 제공해 준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배구조와 실제 감사보수 또는 실제 감사시간을 다룬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해 정상수준과 비정상수준으로 나누어 비정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회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이사회 특성이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1)과 식(2)의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식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ABNAF_t = & a_0 + b_1 INDEPENDENCE_t + b_2 ACTIVITY_t + b_3 EXPERTISE_t + b_4 BIG4_t \\
 & + b_5 FIRST_t + b_6 AREG_t + b_7 TENURE_t + b_8 CON_t + b_9 CROSS_t + b_{10} INVREC_{t-1} \\
 & + b_{11} EXPT_{t-1} + b_{12} ISSUD_{t-1} + b_{13} LIQ_{t-1} + b_{14} LEV_{t-1} + b_{15} ROA_{t-1} \\
 & + b_{16} LOSS_{t-1} + b_{17} GRW_{t-1} + b_{18} ABSTA_{t-1} + b_{19} OWNER_t + b_{20} FORN_t \\
 & + \Sigma IND + \Sigma Y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1)$$

$$\begin{aligned}
 ABNAH_t = & a_0 + b_1 INDEPENDENCE_t + b_2 ACTIVITY_t + b_3 EXPERTISE_t + b_4 BIG4_t \\
 & + b_5 FIRST_t + b_6 AREG_t + b_7 TENURE_t + b_8 CON_t + b_9 CROSS_t + b_{10} INVREC_t \\
 & + b_{11} EXPT_t + b_{12} ISSUD_t + b_{13} LIQ_t + b_{14} LEV_t + b_{15} ROA_t + b_{16} LOSS_t \\
 & + b_{17} GRW_t + b_{18} ABSTA_{t-1} + b_{19} OWNER_t + b_{20} FORN_t + \Sigma IND + \Sigma Y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2)$$

여기서, 종속변수

$ABNAF$ =비정상 감사보수, 아래 식(3)의 회귀모형으로부터 얻은 잔차항

$ABNAH$ =비정상 감사시간, 아래 식(4)의 회귀모형으로부터 얻은 잔차항

이사회 특성변수

INDEPENDENCE

IND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사외이사수/등기이사수)

ACTIVITY

$MEET$ =이사회 의 연간 모임횟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EXPERTISE

AE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회계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선임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NTS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세무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선임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FE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재무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선임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CEO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타기업의 CEO가 적어도 1인 이상 선임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PRO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선임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PROM$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선임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통제변수

$BIG4$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FIRST$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AREG$ =감사인 지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TENURE = 감사인 임기
CON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CROSS = 해외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중 [= (재고자산 + 매출채권) / 총자산]
EXPT = 수출비중 (= 해외매출액 / 총매출액)
ISSUD = 전기 대비 주식 및 사채 발행조달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LIQ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LEV =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자산)
LOSS =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 = 매출액의 성장률 [= (매출액_t - 매출액_{t-1}) / 매출액_{t-1}]
ABSTA = 전기 총발생액의 절대값
OWNER = 대주주 1인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
FORN = 외국인 지분율
ΣIND = 산업별 더미변수
ΣYD = 연도별 더미변수
 ε = 잔차항
 편의상 아래첨자는 생략함

식(1)과 식(2)는 이사회 특성(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이 비정상 감사보수(abnormal audit fees ; *ABNAF*)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abnormal audit hours ; *ABNAH*)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정된 모형식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특히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비교목적상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비정상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식(1)과 식(2)에서 가설 검증과 관련한 주된 관심변수는 이사회 특성 변수로서 독립성(*INDEPENDENCE*), 활동성(*ACTIVITY*) 및 전문성(*EXPERTISE*) 변수들이다(Carello et al. 2002 ; Abbott et al. 2003 ; Xie et al. 2003 등).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 독립성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로 측정하였고, 이사회 활동성은 이사회회의 모임횟수로 측정하였다(Carello et al. 2002 ; Abbott et al. 2003 ; Xie et al. 2003). 또한 이사회 전문성은 사외이사의 구성원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후 6개 변수로 정의하였다. 즉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서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재무전문가, 타기업의 CEO, 교수, 상경계 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각각 포함된 경우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¹⁶⁾

16) 본 연구는 회계전문가의 정의를 공인회계사와 회계학 교수로 하였고,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사로 정의하였다. 또한 재무전문가는 금융기관에 소속된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현재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 경력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6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변수를 측정할 때 해당 정의의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계산을 허용하였다.

식(1)과 식(2)의 종속변수인 비정상 감사보수(*ABNAF*로 칭함)와 비정상 감사시간(*ABNAH*로 칭함)에 대한 측정은 박종일과 박찬웅(2007)의 연구방법에 따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결정모형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이 존재하는 기업규모(*SIZE*) 변수만을 모형식에 고려하여 측정하였다.¹⁷⁾ 즉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은 아래의 식(3)과 식(4)로부터 얻어진 잔차항(ε)을 이용한다.¹⁸⁾

$$LNAF_t = a_0 + b_1 SIZE_{t-1} + \varepsilon_t \quad (3)$$

$$LNAH_t = a_0 + b_1 SIZE_t + \varepsilon_t \quad (4)$$

이러한 비정상 감사보수 측정치는 감사인이 고객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정상 감사보수보다 과대(또는 과소)한 감사보수로서 개별기업간 차이를 나타내는 상대적 측정치이다. 즉, 정상 감사보수를 초과한 감사보수는 할증된 감사보수이며, 정상 감사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감사보수는 할인된 감사보수이다. 비정상 감사시간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비정상 감사보수(비정상 감사시간)의 결정모형이 감사보수(감사시간)의 결정모형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감사보수(감사시간)의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식(1)과 식(2)를 설정하였다(박종일과 박찬웅 2007). 한편, 비정상 감사보수(비정상 감사시간)의 추정과정상에 설명변수로서 기업규모(*SIZE*)가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비정상 감사보수(비정상 감사시간)의 설명변수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¹⁹⁾ 또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같이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감사보수의 결정모형과 감사시간의 결정모형을 동일한 변수로 선정하고 있어 본 연구도 식(1)과 식(2)의 모형식에서 변수를 설정할 때 동일 변수로 설정한다(Simunic 1984 ; Palmrose 1989 ; O'Keefe et al. 1994 ; 문상혁 등 2005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등). 다만, 결정변수의 경우 식(1)과 식(2)의 차이는 감사보수의 결정모형의 경우 직전 재무자료를 기초로 측정하는데 반해, 감사시간의 결정모형은 당기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권수영과 김문철 2001).

만일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서 지배구조가 효과적인 경우 이사회 독립성이 높

17) 일반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기업규모이다(Simunic 1980 ; Palmrose 1989 ; 권수영과 김문철 2001 ; 권수영 등 2005 ; 박수근과 박종일 2010 등).

18)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에서 기업규모를 제외하면 다른 결정요인 변수들이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을 설명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주인기 등(2007)의 연구에서도 적정감사시간을 추정하는데 있어 기업규모(*SIZE*) 변수 하나만을 설명변수로 선정한 바 있다.

19) 식(1)과 식(2)의 모형식에 기업규모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된 결과도 주된 관심변수들에서는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상에 식(1)과 식(2)의 통제변수 모두를 식(3)과 식(4)에 포함하고, 식(1)과 식(2)에서는 통제변수를 제외한 후 주된 이사회 특성변수만을 모형식에 고려한 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지면상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도 역시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의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1)부터 식(4)까지에 제시된 방법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한다.

거나, 활동성이 많거나, 또한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우수한 양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면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우수한 양질의 감사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식(1)과 식(2)의 회귀계수 b_1 , b_2 , b_3 는 각각의 경우 양(+)의 값이 예상된다($b_1 > 0$, $b_2 > 0$, $b_3 > 0$).

식(1)과 식(2)의 모형식에서 공통된 설명변수로는 이 분야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결정모형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박종일과 최 관(2009)과 박종일과 박찬웅(2007)의 연구에서 이용된 통제변수를 주로 사용하였다. 즉 감사인 유형(*BIG4*), 초도감사여부(*FIRST*), 감사인 지정여부(*AREG*), 감사인 임기(*TENURE*), 연결채무제표 작성기업여부(*CON*), 해외상장여부(*CROSS*), 총자산 대비 채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INVREC*), 수출비중(*EXPT*), 전기 대비 주식 및 사채발행액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ISSUD*), 유동비율(*LIQ*), 부채비율(*LEV*), 총자산이익률(*ROA*), 손실발생여부(*LOSS*), 매출액의 성장률(*GRW*), 전기 총발행액(*ABSTA*) 및 소유구조와 관련된 대주주1인 지분율(*OWNER*), 외국인 지분율(*FORN*) 변수 등의 17개 설명변수와, 산업간 차이와 경제적 효과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ΣIND) 및 연도더미(ΣYD)를 모형식에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측정은 식(2)의 모형식 하단과 같으며, 시점 표시에 대한 사항은 식(1)과 식(2)의 모형식에 각각 나타내었다.

통제변수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BIG4*는 선행연구들에서 Big 4 제휴법인이면 non-Big 4 국내법인보다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이 더 많거나 높다고 보고하였다(박종일과 최 관 2009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 권수영 등 2005 등). *FIRST*는 초도감사시에 감사보수에서 할인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포함하였다(곽수근과 박종일 2010 ; 신용인 등 2007 ; 노준화 등 2003 등). 그러나 초도감사시에는 계속감사보다 감사인의 투입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FIRST*는 감사보수와 음(-)의 관계를, 감사시간과는 양(+)의 관계가 예상된다.

또한 *AREG*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감사인 지정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더 증가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곽수근과 박종일 2010 ; 황인태와 강선민 2006 ; 노준화 등 2003). 감사보수가 할증되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도 증가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TENURE*는 감사인 임기가 길수록, 초도감사와 달리 감사투입시간은 감소하지만, 계속감사에 따른 준지대가 형성되어 감사보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의 경우 박종일과 최 관(2009)과 박종일과 박찬웅(2007)의 연구에서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즉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되어 감사인의 추가 감사노력이 증가되고, 감사보수는 할증될 수 있다. *CROSS*는 해외상장을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인의 추가 감사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감사보수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모형식에 고려하였다.

*INVREC*는 감사위험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모형식에 고려하였다(권수영과 김문철 2001 ; 노준

화 등 2003 ; 권수영 등 2005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 곽수근과 박종일 2010 등). 즉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이 클수록 감사인의 추가 감사노력이 증가하여 감사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PT*는 해외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면 감사업무의 복잡성이 높아져서 감사인의 감사 투입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도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권수영 등 2005 ; 권수영과 김문철 2001 ; Simunic 1980 등). *ISSUD*는 외부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객기업의 잠재적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Choi et al. 2009 ; Reynolds et al. 2004 ; 박종일과 최 관 2009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등). Reynolds et al.(2004)은 주식 및 사채발행을 통한 자본조달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LIQ*는 유동비율로서 감사위험에 대한 측정치이면서, 동시에 단기 재무안전성에 대한 지표이다(Choi et al. 2009 ; 전규안과 박종일 2009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 강내철과 김길훈 2005). *LEV*도 감사위험 측정치이기도 하지만, 장기 재무안전성과 관련된 변수이다(곽수근과 박종일 2010 ; 박종일과 최 관 2009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 권수영 등 2005 ; 강내철과 김길훈 2005 등). 유동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감사인의 추가 감사노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ROA 및 *LOSS*는 고객기업의 감사위험에 대한 측정치로 권수영 등(2005), 강내철과 김길훈 (2005), 박종일과 박찬웅(2007), 박종일과 최 관(2009), Choi et al.(2009) 등의 연구에서도 이를 모형식에 포함한 바 있다. 과거 수익성이 낮을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하므로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증가하게 되어 감사보수는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GRW*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변수이다(전규안과 박종일 2009 ; Choi et al. 2009). 전규안과 박종일(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의 감사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A*는 발생액의 크기가 클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감사보수는 할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유구조 관련 변수로 *OWNER*와 *FORN* 변수를 모형식에 고려하였다. 박종일과 박찬웅(2007)과 박종일과 최 관(2009)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2) 12월 결산법인
-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한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

시간 자료 파악이 가능한 기업

- (4)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III에서 필요한 재무자료가 입수 가능한 기업
- (5) 통계적 방법에 따라 극단치는 조정하거나 제외

조건 (1)과 (2)에서 표본을 12월 결산법인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 한 것은 결산월과 업종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 (3)과 (4)는 자료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특성 및 감사보수와 감사시간²⁰⁾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²¹⁾ 특히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사외이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재무자료는 KIS-Value III에서 추출하였다. 조건 (5)는 표본의 극단치(outlier)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형식(1)과 식(2)에 따라 각각 Studentized Residual이 ± 2 를 벗어난 관측치를 극단치로 보아, 이를 표본에서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7까지 8년간으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표본은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보수인 식(1)의 경우 3,583개 기업/연 자료이고,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인 식(2)의 경우 개 2,816개 기업/연 자료이다. 이중 식(1)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3,021개 기업/연 자료이고,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562개 기업/연 자료이다. 또한 식(2)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2,320개 기업/연 자료이고,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496개 기업/연 자료이다.²²⁾

20) 박종일과 박찬웅(2007)의 연구에서는 감사시간의 경우 공시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필터링을 통해 표본에서 제외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도 박종일과 박찬웅(2007)의 방법에 따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표본은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박종일과 박찬웅(2007)의 각주 21에 보고된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구체적인 자료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2000년부터 증권거래법을 개정 한 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무화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결정시 이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내역을 통해 수집하였다. V.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1. 지배구조의 개요,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및 라. 임원의 보수 등에 이사회 특성 관련 변수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도 역시 사업보고서의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서 4. 최근 3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에 수록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22) 지면상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III에 수록된 중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 업종에 표본이 고루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산업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닐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검증결과와 일반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수의 차이검증 결과

<표 1>에는 식(1)과 식(2)의 모형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를 보고하였다.²³⁾ 기술통계는 전체표본과 전체표본을 다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존재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보고하였고, 또한 감사위원회 존재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중위수간의 차이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Panel A에는 식(1)의 결과를, Panel B에서는 식(2)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기술의 편의상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AC'로 칭하고,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NAC'로 칭한다.

Panel A의 감사보수 자료에서 전체표본에서 비정상 감사보수(*ABNAF*)의 평균(중위수)은 0.000(-0.015)이고, NAC의 평균(중위수)은 0.000(-0.019), AC는 0.000(0.016)으로 평균과 중위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NAC와 AC간의 *ABNAF*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비정상 감사시간(*ABNAH*)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²⁴⁾ 평균과 중위수 중 하나라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NAC와 AC간에 초도감사여부(*FIRST*), 총자산 이익률(*ROA*), 손실발생여부(*LOSS*)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제변수와 이사회 특성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NAC)이 존재하는 기업(AC)보다 Big 4 감사인의 선임비율이 낮고, 감사인 지정이 낮으며, 감사인 임기가 짧다. 또한 NAC가 AC보다 감사의 복잡성인 채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이 높고, 수출비중이 높으며, 전기 대비 주식 및 사채발행액이 10% 이상 증가된 증자의 비중이 낮으며, 감사위원인 유동비율은 높은 반면 부채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은 낮고 전기 총발생액의 크기는 더 크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외국인 지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지면상 주요 변수들에 대해 평균과 중위수를 중심으로 보고하였으나, 표본의 선정절차에서 이미 극단치를 조정한 후의 통계치라는 점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검토해 본 결과,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높은 극단치는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4) 지면상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전체표본의 감사보수의 평균(중위수)은 110,266(68,000)천원이었고, NAC는 70,483(57,769)천원을, AC는 270,974(230,000)천원이었다. 이는 평균(중위수)을 기준할 때 3.84(3.98)배 AC가 NAC보다 더 감사보수의 지불이 높다. 한편, 전체표본의 감사시간의 평균(중위수)은 1,366(836)시간이고, NAC는 847(699)시간을, AC는 3,573(2,782)시간이었다. 이는 평균(중위수)을 기준할 때 4.22(3.99)배 AC가 NAC보다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더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감사보수와 비례하여 감사시간의 투입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해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NAC와 AC간의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대해 각각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1% 이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특성의 경우는 NAC가 AC보다 사외이사비율이 낮고, 이사회 모임횟수가 더 적으며,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재무전문가, 타기업의 CEO, 교수 및 상경계 교수가 사외이사로 이사회 내 적어도 1인 이상 포함된 경우가 더 적었다. 이러한 특성은 Panel B의 감사시간 자료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감사시간 자료에서는 감사보수 자료와 달리 FIRST만 차이가 없으며, 추가로 NAC가 AC보다 총자산이익률이 낮고, 손실발생기업은 더 많게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2>와 <표 3>에서는 식(1)과 식(2)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면관계상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또한 <표 2>는 종속변수와 통제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표 3>에서는 종속변수와 주된 관심변수(이사회 특성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각각 나누어서 보고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 대각선 상단은 식(1)의 결과로서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보수와 주요 변수간의 상관성을, 대각선 하단은 식(2)의 결과로서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과 주요 변수간의 상관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표 2>에서 종속변수인 비정상 감사보수(*ABNAF*)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제변수로는 *BIG4*, *AREG*, *TENURE*, *CON*, *CROSS*, *INVREC*, *LIQ*, *LEV*, *ROA*, *LOSS*, *GRW*, *ABSTA*, *OWNER*, *FORN* 등이었다. 즉 Big 4 감사인이 감사하면,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감사인의 임기가 길수록,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해외상장된 기업이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전기 손실발생기업이면, 전기 총발생액의 크기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더 증가하고,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성장성이 높을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상 감사시간(*ABNAH*)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제변수는 *BIG4*, *FIRST*, *AREG*, *TENURE*, *CON*, *CROSS*, *EXPT*, *ISSUD*, *LIQ*, *LEV*, *ROA*, *LOSS*, *ABSTA*, *OWNER*, *FORN* 등으로 나타났다. 즉 Big 4 감사인이 감사하면, 초도감사기업이면, 감사인이 지정되면, 감사인 임기가 길수록,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해외상장기업이면, 전기 대비 주식 및 사채발행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실발생기업이면, 총발생액이 클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더 증가하며,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더 감소하였다. 한편, *ABNAF*와 비교할 때 *INVREC*와 *GRW*에서는 *ANBAH*에 대해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FIRST*와 *ISSUD*에서는 *ANBAH*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EXPT*은 *ANBAH*에 대해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추가로 나타났다.

〈표 2〉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ABNAH	BIG4	FIRST	AREG	TENURE	CON	CROSS	INVREC	EXPT	ISSUD	LIQ	LEV	ROA	LOSS	GRW	ABSTA	OWNER	FORN
ABNAH		0.171 (0.000)	0.018 (0.285)	0.073 (0.000)	0.086 (0.000)	0.208 (0.000)	0.118 (0.000)	0.049 (0.003)	-0.012 (0.461)	0.022 (0.180)	-0.049 (0.003)	0.073 (0.000)	-0.056 (0.001)	0.084 (0.000)	-0.032 (0.052)	0.075 (0.000)	-0.078 (0.000)	0.156 (0.000)
BIG4	0.276 (0.000)		0.029 (0.082)	-0.007 (0.664)	0.034 (0.041)	0.117 (0.000)	0.214 (0.000)	-0.094 (0.000)	0.016 (0.342)	0.091 (0.000)	-0.036 (0.030)	0.030 (0.076)	0.043 (0.010)	-0.045 (0.007)	0.015 (0.359)	-0.048 (0.004)	0.032 (0.058)	0.248 (0.000)
FIRST	0.034 (0.070)	0.022 (0.215)		0.205 (0.000)	-0.420 (0.000)	0.021 (0.217)	-0.005 (0.760)	0.009 (0.573)	-0.007 (0.682)	0.006 (0.710)	0.030 (0.069)	0.062 (0.000)	-0.014 (0.411)	0.034 (0.039)	0.038 (0.022)	0.032 (0.055)	0.018 (0.284)	-0.034 (0.044)
AREG	0.032 (0.090)	0.001 (0.944)	0.211 (0.000)		-0.173 (0.000)	-0.007 (0.688)	0.040 (0.017)	-0.058 (0.001)	-0.004 (0.832)	0.017 (0.300)	-0.018 (0.269)	0.254 (0.000)	-0.028 (0.090)	0.084 (0.000)	-0.006 (0.720)	0.030 (0.077)	-0.001 (0.961)	-0.059 (0.000)
TENURE	0.047 (0.013)	0.042 (0.019)	-0.430 (0.000)	0.176 (0.000)		0.066 (0.000)	0.078 (0.000)	-0.047 (0.005)	-0.010 (0.568)	0.010 (0.550)	0.013 (0.420)	-0.083 (0.000)	0.019 (0.244)	-0.050 (0.003)	-0.022 (0.178)	-0.058 (0.000)	-0.091 (0.000)	0.154 (0.000)
CON	0.173 (0.000)	0.118 (0.000)	0.019 (0.282)	-0.004 (0.802)	0.058 (0.001)	1	0.217 (0.000)	-0.157 (0.000)	-0.008 (0.620)	0.108 (0.000)	-0.051 (0.002)	0.011 (0.502)	0.016 (0.324)	-0.041 (0.015)	-0.013 (0.435)	-0.017 (0.300)	-0.036 (0.029)	0.199 (0.000)
CROSS	0.095 (0.000)	0.224 (0.000)	-0.007 (0.685)	0.048 (0.008)	0.054 (0.003)	0.225 (0.000)	1	-0.159 (0.000)	0.038 (0.025)	0.212 (0.000)	-0.092 (0.000)	0.174 (0.000)	0.040 (0.018)	-0.073 (0.000)	0.039 (0.018)	-0.018 (0.281)	-0.043 (0.010)	0.319 (0.000)
INVREC	-0.007 (0.712)	-0.103 (0.000)	0.022 (0.210)	-0.069 (0.000)	-0.065 (0.000)	-0.149 (0.000)	-0.159 (0.000)	1	-0.009 (0.588)	-0.076 (0.000)	0.080 (0.000)	0.007 (0.660)	-0.030 (0.074)	-0.073 (0.000)	-0.007 (0.676)	-0.007 (0.301)	-0.015 (0.385)	-0.122 (0.000)
EXPT	-0.038 (0.046)	0.016 (0.359)	0.042 (0.020)	-0.004 (0.831)	-0.014 (0.442)	-0.010 (0.571)	0.041 (0.022)	-0.009 (0.611)	1	-0.023 (0.176)	-0.009 (0.581)	0.007 (0.674)	-0.002 (0.908)	-0.007 (0.001)	-0.001 (0.956)	0.000 (0.986)	0.017 (0.305)	-0.005 (0.761)
ISSUD	0.126 (0.000)	0.080 (0.000)	0.006 (0.735)	0.069 (0.000)	0.015 (0.409)	0.125 (0.000)	0.219 (0.000)	-0.059 (0.001)	-0.021 (0.241)	1	-0.192 (0.000)	0.307 (0.000)	-0.043 (0.009)	0.058 (0.001)	0.017 (0.573)	0.071 (0.104)	-0.172 (0.000)	0.030 (0.073)
LIQ	-0.047 (0.012)	-0.011 (0.535)	-0.008 (0.667)	-0.014 (0.437)	0.039 (0.031)	-0.039 (0.029)	-0.054 (0.002)	0.020 (0.276)	-0.009 (0.597)	-0.182 (0.000)	1	-0.492 (0.000)	0.036 (0.031)	-0.081 (0.000)	-0.009 (0.573)	0.027 (0.104)	0.003 (0.858)	0.131 (0.000)
LEV	0.052 (0.006)	0.024 (0.180)	0.027 (0.128)	0.194 (0.000)	-0.072 (0.000)	0.041 (0.022)	0.192 (0.000)	0.053 (0.003)	0.011 (0.547)	0.356 (0.000)	-0.501 (0.000)	1	-0.123 (0.000)	0.268 (0.000)	0.015 (0.378)	0.065 (0.000)	-0.105 (0.000)	-0.157 (0.000)
ROA	-0.085 (0.000)	0.071 (0.000)	0.004 (0.827)	-0.007 (0.690)	0.031 (0.084)	0.026 (0.151)	0.059 (0.001)	-0.009 (0.633)	-0.002 (0.908)	-0.055 (0.002)	0.010 (0.581)	-0.089 (0.000)	1	-0.295 (0.000)	-0.004 (0.808)	-0.407 (0.000)	0.037 (0.027)	0.109 (0.000)
LOSS	0.144 (0.000)	-0.057 (0.002)	-0.013 (0.455)	0.060 (0.001)	-0.034 (0.058)	-0.028 (0.115)	-0.088 (0.000)	-0.049 (0.006)	-0.008 (0.665)	0.062 (0.001)	-0.055 (0.002)	0.228 (0.000)	-0.313 (0.000)	1	-0.009 (0.587)	0.141 (0.000)	-0.088 (0.000)	-0.166 (0.000)
GRW	-0.022 (0.244)	0.005 (0.795)	-0.010 (0.586)	-0.011 (0.524)	-0.010 (0.566)	-0.048 (0.007)	-0.009 (0.632)	0.161 (0.000)	-0.002 (0.930)	0.022 (0.229)	-0.058 (0.001)	0.035 (0.053)	-0.088 (0.000)	-0.064 (0.000)	1	0.011 (0.503)	-0.015 (0.378)	-0.014 (0.418)
ABSTA	0.069 (0.000)	-0.057 (0.002)	0.024 (0.177)	0.069 (0.000)	-0.061 (0.001)	-0.054 (0.002)	0.014 (0.428)	0.117 (0.000)	0.001 (0.964)	0.072 (0.000)	0.020 (0.262)	0.080 (0.000)	-0.789 (0.000)	0.159 (0.000)	0.162 (0.000)	1	-0.059 (0.000)	-0.033 (0.049)
OWNER	-0.102 (0.000)	0.020 (0.254)	0.007 (0.685)	-0.004 (0.812)	-0.071 (0.000)	-0.036 (0.047)	-0.057 (0.002)	-0.013 (0.461)	-0.016 (0.360)	-0.147 (0.000)	0.010 (0.567)	-0.116 (0.000)	0.054 (0.003)	-0.073 (0.000)	-0.011 (0.545)	-0.060 (0.001)	1	-0.048 (0.004)
FORN	0.078 (0.000)	0.255 (0.000)	-0.037 (0.038)	-0.058 (0.001)	0.141 (0.000)	0.208 (0.000)	0.321 (0.000)	-0.133 (0.000)	-0.007 (0.709)	0.014 (0.442)	0.160 (0.000)	-0.167 (0.000)	0.121 (0.000)	-0.164 (0.000)	-0.015 (0.407)	-0.037 (0.038)	-0.048 (0.008)	1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같음.

주2)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고함, 단, 대각선 상단은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보수(ABNAH)인 경우 N = 3,583개 기업/면이고, 대각선 하단은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ABNAH)인 경우 N = 2,816기업/면 자료임.

주3) 괄호안의 수치는 p값임(양측검정).

또한 종속변수 *ABNAF*와 *ANBAH*에 대해 유의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이 일부 있으나, 이들 변수들은 다른 통제변수와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한 후 결과에서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도 모형식에 고려한 후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표 3>에서 *ABNAF*에 대해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관심변수로는 *IND*, *AE*, *NTS*, *FE*, *PRO*, *PROM* 등이고, *ANBAH*에 대해서는 *IND*, *NTS*, *FE*, *PRO*, *PROM*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재무전문가, 교수 및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에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보수는 더 증가하였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세무전문가, 재무전문가, 교수 및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에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NAF*와 *ANBAH*간에 주된 관심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AE* 변수였다. 한편, 이사회 활동성을 나타내는 *MEET*는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단순 상관관계만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통제변수들간의 효과도 적절히 통제한 식(1)과 식(2)의 다변량 회귀 분석 모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 종속변수와 관심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 수	<i>ABNAH</i>	<i>IND</i>	<i>MEET</i>	<i>AE</i>	<i>NTS</i>	<i>FE</i>	<i>CEO</i>	<i>PRO</i>	<i>PROM</i>
<i>ABNAF</i>	1	0.179 (0.000)	0.017 (0.320)	0.029 (0.086)	0.051 (0.002)	0.062 (0.000)	0.010 (0.545)	0.075 (0.000)	0.121 (0.000)
<i>IND</i>	0.163 (0.000)	1	0.032 (0.059)	0.167 (0.000)	0.142 (0.000)	0.303 (0.000)	0.174 (0.000)	0.227 (0.000)	0.302 (0.000)
<i>MEET</i>	-0.022 (0.247)	0.021 (0.233)	1	0.003 (0.836)	-0.033 (0.048)	0.022 (0.184)	0.007 (0.695)	0.034 (0.043)	-0.025 (0.130)
<i>AE</i>	0.009 (0.648)	0.183 (0.000)	0.004 (0.808)	1	0.264 (0.000)	0.003 (0.879)	0.005 (0.760)	-0.037 (0.029)	0.105 (0.000)
<i>NTS</i>	0.040 (0.036)	0.152 (0.000)	-0.035 (0.050)	0.288 (0.000)	1	-0.005 (0.748)	-0.018 (0.273)	-0.012 (0.475)	0.088 (0.000)
<i>FE</i>	0.095 (0.000)	0.311 (0.000)	0.018 (0.315)	0.009 (0.616)	-0.004 (0.827)	1	0.140 (0.000)	-0.016 (0.346)	0.090 (0.000)
<i>CEO</i>	-0.007 (0.726)	0.187 (0.000)	0.003 (0.870)	0.019 (0.300)	-0.013 (0.482)	0.155 (0.000)	1	-0.086 (0.000)	-0.099 (0.000)
<i>PRO</i>	0.047 (0.013)	0.226 (0.000)	0.022 (0.228)	-0.024 (0.174)	-0.015 (0.416)	-0.017 (0.343)	-0.071 (0.000)	1	0.048 (0.004)
<i>PROM</i>	0.111 (0.000)	0.318 (0.000)	-0.049 (0.007)	0.111 (0.000)	0.096 (0.000)	0.108 (0.000)	-0.089 (0.000)	0.062 (0.001)	1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같음.

2)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고함, 단, 대각선 상단은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보수($ABNAF$)인 경우 $N=3,583$ 개 기업/연이고, 대각선 하단은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ABNAH$)인 경우 $N=2,816$ 개 기업/연 자료임.

3) 괄호안의 수치는 p 값임(양측검증).

<표 4>에는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의 추정에 이용된 식(3)과 식(4)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에서 기업규모($SIZE$) 변수가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75.1%와 65.9%로 매우 높았다.²⁵⁾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과 같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으로써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기업규모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식(3)과 식(4)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각각 얻어진 잔차항을 이용하여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 변수를 측정한다(박종일과 박찬웅 2007).

<표 4>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의 추정모형의 결과

변 수	구 분	전 체 표 본	변 수	구 분	전 체 표 본
		종속변수($LNAF_t$)			종속변수($LNAH_t$)
절편		2,964(37.249 ^{***})	절편		-4.272(-28.284 ^{***})
$SIZE_{t-1}$		0.427(104.014^{***})	$SIZE_t$		0.422(73.780^{***})
수정된 R^2		0.751	수정된 R^2		0.659
F 값		10,818.999 ^{***}	F 값		5,443.541 ^{***}
N		3,583	N		2,816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동일함.

2) 분석기간 2000년과 2007년을 대상으로 식(3)과 식(4)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 -값임.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3. 전체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5>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존재하는 기업의 각 이사회 특성이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체표본의 회귀분석 결과를

25) 지면상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전체표본을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과 존재하지 않는 기업으로 나누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가 $LNAF$ 인 경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존재하는 경우 $SIZE$ 의 설명력은 각각 55.4%와 76.9%로 나타났고, 종속변수가 $LNAH$ 인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SIZE$ 의 설명력은 각각 40.7%와 67.5%로 나타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결정모형에서 기업규모가 설명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먼저 살펴본다. 표에서 식(1)의 회귀분석 결과는 왼쪽 란에, 식(2)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오른쪽 란에 각각 보고하였다. 산업더미(ΔIND)와 연도더미(ΔYD)는 회귀분석시에 포함되어 분석되었으나, 지면상 보고는 생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별 차이와 연도별 차이가 통제된 후의 검증결과이다.

<표 5>를 보면, 종속변수가 *ABNAF*와 *ABNAH*인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F -값이 나타나고 있어 식(1)과 식(2)의 연구모형의 설정에서 적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²⁶⁾ 모형의 설명력(수정된 R^2)은 종속변수가 *ABNAF*인 경우 34.6%로 종속변수가 *ABNAH*의 22.5%보다 12.1%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에서 주된 관심변수의 결과를 보면, 이사회 독립성 변수인 *IND*의 회귀계수는 비정상 감사보수나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지고 있다. 즉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더 증가하고, 감사노력이 더 투입된다는 결과이다. 반면, 이사회 활동성 변수인 *MEET*의 회귀계수는 예상과 달리 비정상 감사보수나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계수값이 나타났다.

한편, 이사회 전문성 변수에서는 *NTS*와 *PROM*에서 비정상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FE*는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사회 전문성 중 세무전문가나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더 증가하는 반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재무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포함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 *ABNAF*에 대해 유의한 계수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는 *BIG4*, *FIRST*, *AREG*, *TENURE*, *CON*, *CROSS*, *INVREC*, *EXPT*, *LIQ*, *LEV*, *LOSS*, *GRW*, *ABSTA*, *OWNER*, *FORN* 등이다. 즉 Big 4 감사인이 감사하면,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감사인의 임기가 길수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해외상장된 기업이면,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전기 손실발생기업이면, 전기 총발생액의 크기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추가로 더 증가하고, 초도감사기업이면,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성장성이 높을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추가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단순 상관계수와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FIRST*와 *ROA* 변수이다. 즉 *FIRST*는 단순 상관계수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ABNAF*에 대해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26) 표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명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VIF* 값으로 체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5>에서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보수인 경우의 *VIF* 값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LEV*로 1.980이었고,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인 경우의 *VIF* 최대값은 *ROA* 변수에서 3.52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분석결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한다.

〈표 5〉 이사회 특성상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전체표본

구분 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F_t$)	구분 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H_t$)
절편	?	-0.527 (-14.476 ^{***})	절편	?	-0.450 (-6.377 ^{***})
IND_t	+	0.192 (4.123^{***})	IND_t	+	0.237 (3.414^{***})
$MEET_t$	+	-0.012 (-1.648[*])	$MEET_t$	+	-0.008 (-2.066^{**})
AE_t	+	0.009 (0.701)	AE_t	+	-0.008 (-0.701)
NTS_t	+	0.037 (1.977^{**})	NTS_t	+	0.016 (0.525)
FE_t	+	0.015 (1.238)	FE_t	+	0.044 (2.373^{**})
CEO_t	+	0.006 (0.586)	CEO_t	+	-0.021 (-1.343)
PRO_t	+	0.001 (0.076)	PRO_t	+	-0.017 (-0.871)
$PROM_t$	+	0.038 (2.716^{***})	$PROM_t$	+	0.027 (1.257)
$BIG4_t$	+	0.062 (5.943 ^{***})	$BIG4_t$	+	0.253 (15.151 ^{***})
$FIRST_t$	-	-0.033 (-2.158 ^{**})	$FIRST_t$	+	0.029 (1.226)
$AREG_t$	+	0.172 (6.568 ^{***})	$AREG_t$	+	0.066 (1.531)
$TENURE_t$	+	0.004 (3.013 ^{***})	$TENURE_t$	-	0.003 (1.747 [*])
CON_t	+	0.050 (4.672 ^{***})	CON_t	+	0.085 (5.188 ^{***})
$CROSS_t$	+	0.025 (1.815 [*])	$CROSS_t$	+	0.032 (1.515)
$INVREC_{t-1}$	+	0.161 (4.933 ^{***})	$INVREC_t$	+	0.117 (2.291 ^{***})
$EXPT_{t-1}$	+	-0.001 (-1.781 [*])	$EXPT_t$	+	-0.002 (-2.932 ^{***})
$ISSUD_{t-1}$	+	0.013 (1.139)	$ISSUD_t$	+	0.069 (4.003 ^{***})
LIQ_{t-1}	-	-0.012 (-3.652 ^{***})	LIQ_t	-	-0.013 (-3.037 ^{***})
LEV_{t-1}	+	0.116 (3.845 ^{***})	LEV_t	+	-0.053 (-0.976)
ROA_{t-1}	-	-0.002 (-0.097)	ROA_t	-	-0.038 (-0.637)
$LOSS_{t-1}$	+	0.056 (3.845 ^{***})	$LOSS_t$	+	0.158 (6.855 ^{***})
GRW_{t-1}	+	-0.001 (-2.554 ^{***})	GRW_t	+	-0.017 (-1.232)
$ABSTA_{t-1}$	+	0.077 (2.850 ^{***})	$ABSTA_t$	+	0.113 (1.365)
$OWNER_t$	-	-0.117 (-4.278 ^{***})	$OWNER_t$	-	-0.124 (-2.886 ^{***})
$FORN_t$	+	0.068 (1.821 [*])	$FORN_t$	+	-0.097 (-1.747 [*])
ΣIND	?	포함	ΣIND	?	포함
ΣYD	?	포함	ΣYD	?	포함
수정된 R^2		0.346	수정된 R^2		0.225
F 값		42.259 ^{***}	F 값		18.771 ^{***}
N		3,583	N		2,816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동일함.

2) 분석기간 2000년과 2007년을 대상으로 식(1)과 식(2)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종속변수 *ABNAH*에 대해 유의한 계수값을 가지고 있는 통제변수는 *BIG4*, *TENURE*, *CON*, *INVREC*, *EXPT*, *ISSUD*, *LIQ*, *LOSS*, *OWNER*, *FORN* 등으로 나타났다. 즉 Big 4 감사인이 감사 하면, 감사인 임기가 길수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채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이 클수록, 전기 대비 주식 및 사채발행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면, 손실발생기업이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추가로 더 증가하며,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추가로 더 감소하였다. <표 2>의 단순 상관성과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FIRST*, *AREG*, *CROSS*, *INVREC*, *LEV*, *ROA*, *ABSTA*였다. *FIRST*, *AREG*, *CROSS*, *LEV*, *ROA*, *ABSTA* 등으로 이들 변수는 *ABNAH*에 대해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INVREC*는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나타나고 있다.

4. 감사위원회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분된 회귀분석 결과

<표 6>과 <표 7>에서는 앞서의 <표 5>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와 달리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존재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표 6>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이사회 특성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표 7>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목적상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사회 특성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보고방식은 앞서 <표 5>와 동일하다.

먼저 <표 6>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결과를 보면, 이사회의 독립성 변수인 *IND*의 회귀계수는 전체표본의 결과와 같이 비정상 감사보수나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나타났다. 즉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정상수준보다 더 증가하고, 또한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정상수준보다 더 투입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우수한 양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더 증가하며, 또한 높은 감사보수를 받은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더 증가시켜 양질의 감사품질을 제공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표본과 달리 이사회의 활동성 변수인 *MEET*의 회귀계수는 비정상 감사보수나 비정상 감사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사회의 활동성과 관련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이사회의 전문성 변수는 비정상 감사보수나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해 *PROM*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 즉 이사회의 전문성 중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포함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정상수준보다 더 증가하며, 또한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도 정상수준보다 더 증가된다는 결과이다.

〈표 6〉 이사회 특성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변수	구분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F_{it}$)	변수	구분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H_{it}$)
절편		?	-0.532 (-14.189 ^{***})	절편		?	-0.437 (-5.906 ^{***})
IND_{it}		+	0.129 (2.119^{**})	IND_{it}		+	0.193 (2.161^{**})
$MEET_{it}$		+	0.006 (0.006)	$MEET_{it}$		+	0.000 (0.021)
AE_{it}		+	0.010 (0.684)	AE_{it}		+	-0.020 (-0.890)
NTS_{it}		+	0.015 (0.711)	NTS_{it}		+	-0.020 (-0.576)
FE_{it}		+	-0.005 (-0.380)	FE_{it}		+	-0.002 (-0.084)
CEO_{it}		+	0.006 (0.533)	CEO_{it}		+	-0.018 (-1.125)
PRO_{it}		+	-0.009 (-0.667)	PRO_{it}		+	-0.033 (-1.572)
$PROM_{it}$		+	0.070 (4.427^{***})	$PROM_{it}$		+	0.069 (2.781^{***})
$BIG4_{it}$		+	0.077 (7.395 ^{***})	$BIG4_{it}$		+	0.274 (16.535 ^{***})
$FIRST_{it}$		-	-0.028 (-1.730 [*])	$FIRST_{it}$		+	0.022 (0.905)
$AREG_{it}$		+	0.187 (6.654 ^{***})	$AREG_{it}$		+	0.096 (1.987 ^{**})
$TENURE_{it}$		+	0.005 (4.145 ^{***})	$TENURE_{it}$		-	0.002 (1.248)
CON_{it}		+	0.075 (6.899 ^{***})	CON_{it}		+	0.113 (6.825 ^{***})
$CROSS_{it}$		+	0.051 (3.302 ^{***})	$CROSS_{it}$		+	0.032 (1.364)
$INVREC_{it-1}$		+	0.088 (2.741 ^{**})	$INVREC_{it}$		+	0.025 (0.484)
$EXPT_{it-1}$		+	-0.001 (-1.210)	$EXPT_{it}$		+	-0.002 (-2.415 ^{**})
$ISSUD_{it-1}$		+	0.027 (2.429 ^{***})	$ISSUD_{it}$		+	0.079 (4.613 ^{***})
LIQ_{it-1}		-	-0.014 (-4.454 ^{***})	LIQ_{it}		-	-0.013 (-3.076 ^{***})
LEV_{it-1}		+	0.152 (4.545 ^{***})	LEV_{it}		+	0.006 (0.113)
ROA_{it-1}		-	-0.004 (-0.171)	ROA_{it}		-	0.008 (0.129)
$LOSS_{it-1}$		+	0.032 (2.174 ^{**})	$LOSS_{it}$		+	0.128 (5.431 ^{***})
GRW_{it-1}		+	-0.001 (-2.542 ^{***})	GRW_{it}		+	-0.013 (-0.986)
$ABSTA_{it-1}$		+	0.051 (1.948 ^{**})	$ABSTA_{it}$		+	0.153 (1.844 [*])
$OWNER_{it}$		-	-0.091 (-3.274 ^{***})	$OWNER_{it}$		-	-0.097 (-2.205 ^{**})
$FORN_{it}$		+	0.137 (3.365 ^{***})	$FORN_{it}$		+	0.027 (0.459)
ΣIND		?	포함	ΣIND		?	포함
ΣYD		?	포함	ΣYD		?	포함
수정된 R^2			0.343	수정된 R^2			0.220
F 값			35.257 ^{***}	F 값			15.245 ^{***}
N			3,021	N			2,320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동일함.

2) 분석기간 2000년과 2007년을 대상으로 식(1)과 식(2)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이는 이사회의 전문성 중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구성되면 우수한 양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더 증가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받은 감사인은 감사시간의 투입을 더 증가시켜 양질의 감사품질을 제공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3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전문성 중 상경계교수에서만 지지된 결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로 *PROM*와 *ABNAH*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지만, 그에 반해 전체표본에서의 *NTS*와 *ABNAF*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나 *FE*와 *ABNAH*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표 2>에서 종속변수가 *ABNAH*인 경우에서 변수간 상관성이 높았던 *ABSTA*와 *ROA*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ABSTA*를 제외한 후 추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지면상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관심변수의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식(2)에서 *ABSTA*를 제외한 후에도 *IND*는 *ABNAH*에 대해 5%수준에서 t 값이 2.204로 나타났으며, *PROM*는 1% 수준에서 t 값이 2.74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7>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결과로서, 앞서의 가설 검증과는 무관하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목적상에 분석된 결과이다.

<표 7>을 보면, *IND*의 회귀계수는 비정상 감사보수에 대해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으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부호도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MEET*의 회귀계수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 감사보수나 비정상 감사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이 나타나지 않았고, 기대부호에서도 서로 상반되었다.

〈표 7〉 이사회 특성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변수	구분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F_t$)	변수	구분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H_t$)
절편		?	-0.897 (-6.531***)	절편		?	-0.702 (-3.398***)
IND_t		+	0.097 (1.745*)	IND_t		+	-0.107 (-0.682)
$MEET_t$		+	-0.014 (-0.639)	$MEET_t$		+	-0.047 (-1.415)
AE_t		+	-0.069 (-2.422**)	AE_t		+	-0.090 (-1.976**)
NTS_t		+	0.086 (2.323**)	NTS_t		+	0.025 (0.447)
FE_t		+	0.075 (2.893***)	FE_t		+	0.154 (3.969***)
CEO_t		+	-0.040 (-1.422)	CEO_t		+	-0.053 (-1.254)
PRO_t		+	0.005 (0.180)	PRO_t		+	0.026 (0.678)
$PROM_t$		+	-0.050 (-1.902**)	$PROM_t$		+	-0.040 (-0.996)
$BIG4_t$		+	0.118 (3.369***)	$BIG4_t$		+	0.298 (5.357***)
$FIRST_t$		-	-0.033 (-0.880)	$FIRST_t$		+	0.100 (1.838*)
$AREG_t$		+	0.119 (2.165**)	$AREG_t$		+	-0.059 (-0.740)
$TENURE_t$		+	0.005 (1.635*)	$TENURE_t$		-	0.010 (2.235**)
CON_t		+	0.039 (1.358)	CON_t		+	0.059 (1.256)
$CROSS_t$		+	0.054 (1.745*)	$CROSS_t$		+	0.120 (2.529***)
$INVREC_{t-1}$		+	0.537 (4.472***)	$INVREC_t$		+	0.480 (2.641***)
$EXPT_{t-1}$		+	0.005 (0.148)	$EXPT_t$		+	0.008 (0.157)
$ISSUD_{t-1}$		+	0.057 (1.425)	$ISSUD_t$		+	0.119 (2.215**)
LIQ_{t-1}		-	0.061 (2.796***)	LIQ_t		-	-0.007 (-0.210)
LEV_{t-1}		+	-0.179 (-1.488)	LEV_t		+	-0.304 (-1.747*)
ROA_{t-1}		-	-0.393 (-1.880*)	ROA_t		-	-0.499 (-1.383)
$LOSS_{t-1}$		+	-0.012 (-0.274)	$LOSS_t$		+	0.062 (0.912)
GRW_{t-1}		+	0.002 (0.659)	GRW_t		+	-0.058 (-0.892)
$ABSTA_{t-1}$		+	0.480 (2.673***)	$ABSTA_t$		+	-0.415 (-1.468)
$OWNER_t$		-	0.004 (0.047)	$OWNER_t$		-	0.148 (1.228)
$FORN_t$		+	0.113 (1.268)	$FORN_t$		+	0.030 (0.217)
ΣIND		?	포함	ΣIND		?	포함
ΣYD		?	포함	ΣYD		?	포함
수정된 R^2			0.486	수정된 R^2			0.399
F 값			12.784***	F 값			8.293***
N			562	N			496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동일함.

2) 분석기간 2000년과 2007년을 대상으로 식(1)과 식(2)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이사회 전문성에 대한 결과는 비정상 감사보수에 대해 *NTS*와 *FE*는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AE*와 *PROM*은 예상과 달리 유의한 음(-)의 계수값이 나타나고 있어 전문성에 따라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해 *FE*는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AE*는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어 비정상 감사보수와 일치된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존재하는 기업간에는 특히 이사회 전문성에 따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존재유무에 따라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발견이다.²⁷⁾

한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는 사외이사 중에서 일부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현행 규정상 적어도 1인 이상은 회계나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1인 이상 회계나 재무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회계와 재무전문가가 감사인의 감사보수나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데 반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의 영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발견이다.

5. 이사회 전문성에 대한 민간도 분석

본 연구는 이사회 전문성과 관련한 검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사회 전문성 변수에 대하여 사외이사비율과 같이 연속형 변수²⁸⁾로 측정하여 앞서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Panel A에는 전체표본을 나누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회귀분석 결과를, Panel B에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회귀분석 결과를 각각 보고하였다. 지면상 관심변수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표 8>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 전문성 변수 중 *PROM*의 결과는 <표 6>과 일치됨을 볼 수 있다. 다만,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의 경우 *PRO*는 *ABNAH*에 대해 유의한 음(-)의 계수값이 나타났다.

27)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사회 특성과 비교해서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특성 보다는 감사위원회 특성이 더 중요하여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Abbott et al. 2003 ; 정영진 2005 ; 박종일 2006).

28) 예를 들어, 등기이사수가 3명인데, 이중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재무전문가가 2명이면 2/3의 방식으로 사외이사비율과 동일하게 비율변수의 형태인 연속형 변수로 측정한 것이다.

〈표 8〉 이사회 전문성에 대한 강건성 분석결과

Panel A :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구분 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F_t$)	구분 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H_t$)
IND_t	+	0.132 (2.018**)	IND_t	+	0.243 (2.496***)
$MEET_t$	+	0.005 (0.678)	$MEET_t$	+	0.000 (0.007)
AE_t	+	0.103 (1.202)	AE_t	+	-0.086 (-0.630)
NTS_t	+	0.057 (0.421)	NTS_t	+	-0.029 (-0.133)
FE_t	+	-0.072 (-0.989)	FE_t	+	-0.081 (-0.746)
CEO_t	+	0.021 (0.399)	CEO_t	+	-0.085 (-1.049)
PRO_t	+	-0.031 (-0.376)	PRO_t	+	-0.394 (-3.160***)
$PROM_t$	+	0.331 (3.325***)	$PROM_t$	+	0.335 (2.151**)
통제변수	?	포함	통제변수	?	포함

Panel B :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

구분 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F_t$)	구분 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ABNAH_t$)
IND_t	+	0.154 (1.336)	IND_t	+	-0.151 (-0.838)
$MEET_t$	+	-0.009 (-0.393)	$MEET_t$	+	-0.044 (-1.315)
AE_t	+	-0.397 (-2.250**)	AE_t	+	-0.463 (-1.507)
NTS_t	+	0.575 (2.075**)	NTS_t	+	0.120 (0.267)
FE_t	+	0.235 (2.050***)	FE_t	+	0.595 (3.470***)
CEO_t	+	-0.192 (-2.058**)	CEO_t	+	-0.095 (-0.675)
PRO_t	+	0.066 (0.457)	PRO_t	+	0.123 (0.534)
$PROM_t$	+	-0.241 (-1.883*)	$PROM_t$	+	0.050 (0.252)
통제변수	?	포함	통제변수	?	포함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1>의 하단과 동일함.

2) 분석기간 2000년과 2007년을 대상으로 식(1)과 식(2)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한편,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는 앞서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와 달리 IND 의 계수값이 더 이상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이사회 전문성 변수에 대하여 같은 비율변수로 측정하면 이사회 독립성 보다 이사회 전문성 변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보수의 경우에서 AE , NTS , FE , $PROM$ 의 결

과는 <표 7>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CEO의 계수값에서 추가로 ABNAH에 대해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비정상 감사시간의 경우 FE의 결과는 앞서 <표 7>의 결과와 일치하며, 다만, <표 7>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AE의 경우 음(-)의 계수값은 더 이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이사회 전문성 변수를 더미변수가 아닌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여도 일부 변수에서 유의수준에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에서 이사회 전문성 변수에 따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재무전문성 변수에서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전문성 보다는 이를 제외한 상경계 교수 변수에서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외감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적어도 1인 이상 회계나 재무전문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외이사 구성요건상에 이러한 조항이 별도로 없어 감사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선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이사회 전문성에 따른 감사보수나 감사시간에 주는 영향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Abbott et al. 2003 ; 정영진 2005 ; 박종일 2006)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특성인 독립성, 활동성 및 전문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한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과 비교하여 감사인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사회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이 설치된 기업보다 5배 이

상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구주제로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한편, 이사회의 특성이 사외이사의 특성으로 대변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보다 이사회의 전문성 변수에 대해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 사외이사가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감사보수나 감사시간 보다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각각 정상수준과 비정상수준으로 각각 나누어 이사회 특성이 비정상 수준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검증가능한 가설로서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특성 중 독립성이 높고, 활동적이며, 또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더 증가하거나 또는 감사시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Abbott et al. 2003 ; 정영진 2005 ; 박종일 2006).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유가증권상장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지배구조 특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본을 대상으로 최종표본 3,583개 기업/연 자료를, 이중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3,021개 기업/연 자료이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은 562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특성 중 독립성과 전문성이 비정상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그리고 비정상 감사시간과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 모임횟수로 측정된 활동성은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과는 별다른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사외이사로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재무전문가, 타기업의 경영자 및 교수는 각각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사회의 전문성 중 적어도 1인 이상 상경계교수가 사외이사로 포함된 기업은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상경계교수가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수한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가 할증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더 증가된다는 결과이다.

둘째,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특성 중 전문성 변수에 따라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전문성 중 세무전문가 또는 재무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정상 감사보수가 더 증가된 반면, 이와는 상반되게 회계

전문가 또는 상경계교수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정상 감사보수는 더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상경계교수의 결과는 앞서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상반된 결과였다. 또한 재무전문가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정상 감사시간이 더 증가된 반면, 이와는 달리 회계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정상 감사보수는 더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이상의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즉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결과에서는 회계와 재무전문가가 감사인의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반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의 결과에서는 회계와 재무전문가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적어도 1인 이상 회계나 재무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들 사외이사의 구성원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는 적어도 1인 이상 회계나 재무전문가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를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존재유무에 따라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구조의 특성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주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실증적 문헌에 대한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좋은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와 실무계 및 규제기관에게는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내지는 효과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유익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은 추정모형을 통해 측정되므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와 모형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외된 변수(omitted variables)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경험적 연구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한편, 미래의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사회 특성과 자본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내철 · 김길훈. 2005. “기업실패위험이 감사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호 : 219 - 239.
- 강희갑. 1999.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미국법상의 경영관리구조”. 경영법률 제9권 : 127 - 161.
- 곽수근. 2010. “감사위원회에 관한 연구들의 비판적 고찰 및 제언”.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175 - 217.
- 곽수근 · 박종일. 2010. “유가증권상장, 코스닥등록 및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 회계저널 제19권 제4호 : 197 - 230.
- 권수영 ·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부소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115 - 143.
- 권수영 · 김문철 ·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 47 - 76.
- 권중호. 2001.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상장협 제44호. 시사논단.
- 노준화 · 배길수 · 전영순. 2003. “지정감사인인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 177 - 202.
- 문상혁 · 지현미 · 최 관. 2005. “결산일 차이가 감사보수, 감사시간, 그리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 135 - 165.
- 박광훈 · 이명곤 · 박종일 · 박종찬. 2005.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 회계기준제정의 관점”. 회계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7호.
- 박종일. 2006.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노력 간의 관계”. 회계와 감사연구 제43호 : 119 - 154.
- 박종일 · 박찬웅. 2007.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이 비정상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 119 - 159.
- 박종일 · 최 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 257 - 293.
- 신용인 · 최 관 ·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 173 - 207.
- 전규안 · 박종일. 2009.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발생액 정보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8권 제2호 : 319 - 350.
- 정연진. 2005.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호 : 145 - 166.
- 정찬형. 1999.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 203 - 230.
- 주인기 · 최 관 · 권수영 · 이영한. 2007. “외부감사 실무를 위한 산업별 - 기업규모별 준거감사시간의 산정”. 회계저널 제16호 제3호 : 35 - 63.
- 최 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46 - 76.

- 황인태 · 강선민. 2006. “지정감사인 감사보수는 과연 적정한가?” 회계저널 제15권 특별호 : 91 - 122.
- Abbott, L. and S. Parker, 2000. Auditor selection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8 (Fall) : 47 - 66.
- Abbott, L., J. Gary, F. Peters, and S. Parker,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 (September) : 17 - 32.
- Beasley, M. and K. Petroni, 2001. Board independence and audit - firm typ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0 (1) : 97 - 114.
- Beasley, M., 199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 composition and financial statement fraud. *Accounting Review* 71 : 443 - 465.
- Brickley, J., Coles, J., and R. Terry. 1994. Outside directors and the adoption of poison pill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5 : 371 - 390.
- Byrd, J., and K. Hickman. 1992. Do outside directors monitor managers? Evidence from tender offer bi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2 : 195 - 222.
- Carello, J.V., D.R. Hermanson, T.L. Neal, and R.R. Riley. 2002.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 (Fall) : 365 - 385.
- Choi, J.H., J.B. Kim, and Y. Zang. 2009. The asymmetric associ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fees paid to audit firms : Revisited. *Forthcoming at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 Dechow, P., Sloan, R., and A. Sweeney. 1996.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 : 1 - 36.
- Fama, E., and M. Jensen.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 301 - 326.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size on audit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 (August) : 133 - 151.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 305 - 360.
- Kinney, W. and R. Libby. 2002. Discussion of the relatio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107 - 114.
-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 375 - 400.
- La Porta, R., F. Lopez - De - Silanes, A. Shleifer, and R. Vishny. 2000.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 3 - 27.
- La Porta, R., F. Lopez - De - Silanes, and A. Shleifer. 1999.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4 (2) : 471 - 517.

- Menon, K., and J. Williams. 1994. The use of audit committee for monitor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3 (Summer) : 121 – 139.
- O’Keefe, T., D. Simunic, and M. Stein. 1994. The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 (Autumn) : 241 – 261.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Spring) : 97 – 110.
- Palmrose, Z. 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 *The Accounting Review* 64 (July) : 488 – 499.
- Reynolds, J.L., D. Deis, and J.R. Francis. 2004. Professional service fees and auditor objectiv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3 (Spring) : 29 – 52.
- Shleifer, A. and R. Vishny, 1997.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e* 52 : 737 – 783.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Spring) : 161 – 190.
- Simunic, D. 1984. Aud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 : 679 – 702.
- Xie, B., W. Davidson III, and P. DaDalt,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 : 295 – 316.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Hours*

Jong-II 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 quality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hours), using data gathered under the recent FSS's DART system audit fee and hours disclosure rules. Data about boards characteristics (independence, activity, and expertise) are hand-collected from a business reporting.

The role of the outside directors in corporate governance is a subject of increasing regulatory interest. Board independence are invers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earnings manipulation (Dechow et al. 1996) and financial statement fraud (Beasley 1996), the absolute values of abnormal accruals (Klein 2002), and the likelihood that firms avoid an earnings decline (Vafeas 2005).

From the auditor's perspective, auditors seek to minimize total cost by balancing their resource (costs of performing more audit work) and their expected future losses from legal liability. Additional audit effort decreases the probability that the auditor will suffer liability losses, and the auditor provides a quantity of audit work that minimizes total cost (Carcello et al. 2002). Therefore, boards desiring additional assurance beyond the auditor's typical, cost-minimizing level would need to demand this additional assurance from their audit firm (additional work results in differentially higher audit quality). Providing differentially higher-quality audit services would be costly for the audit firm, thus increasing the audit fees and audit hours as these costs are passed on to the client. I hypothesize that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hours will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ard independence, activity, and expertise. This study focus on boar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e firms have no audit committee. The uniqueness of this paper versus other papers relating board characteristics to audit quality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 hours) is that while previous papers either examine whether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audit fees (Abbott et al. 2003 ; Jung 2005) or audit hours (Park 2006). This study examines a large sample of 3,583 audit fees data and 2,816 audit hours data nonregulated KSE firms in the period from 2000 to 2007.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8-327-B00329).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I find that board independence (defined as percent of outside directors on board of directors) and expertise (defined as an board composition containing at least one member with a business administration related professor)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hours. On the contrary, activity (meeting frequency) was not associated with higher audit fees and audit hours at conventional levels. However, this finding is conditional upon the strength of the overall governance structure, i.e., in boards on the presence of audit committee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study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board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characteristics are considering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governance. The results add to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documenting relation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nd various facets of the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processes, as well as to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of audit fees and audit hours.

〈Key words〉 corporate governance, board characteristics, independence, activity, expertise, abnormal audit fees, abnormal audit hours, audit quality